

어제와 오늘, 그리고 21세기

Bygone Days and Future

崔相彩 / 창립회원, 최상채 건축사사무소
by Choi Sang-Chae

순천(順天)에서 천리길! 기차를 8시간이상이나 타고 상경!

1965년 10월 23일 오후 12시부터 대한건축사협회 창립회원 247명중 약130명의 구성으로 건설협회강당을 빌려서 심야(深夜)까지 저녁식사도 거른 채 정열을 쏟아 협회의 발족을 보았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지만 어언 세 번이나 변해버린 협회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창립회원의 한사람으로 감회가 깊다.

그동안 협회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기술의 발전을 쌓아올렸던 중에서도 '88서울올림픽대회의 모든 시설물들의 창작에 회원들의 정성을 쏟아 적극적인 참여의 소산으로 올림픽대회를 대성공리에 치를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현대화에 꽃을 피워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한 회원들의 참여속에 그 결실을 거둔 것으로 믿어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힘든 여건하에서도 회원의 피땀흘리는 노력과 정열로서 조형예술의 공간을 창조하는데 사명감과 국가의 소명에 헌신한 소산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고질적인 병폐가 독버섯처럼 아직도 도사리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진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국민 의식구조가 어지럽게 비춰지고 있는 현실을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준법정신의 결여! 공정거래를 외면한 한심한 처사, 그저 싸구려만을 추구하는 군상들! 설계비도 저가로, 공사비도 저렴하게! 그래가지고 좋은작품, 튼튼한 구조물을 원하니 무슨 백년대계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폐습은 우리들 주변에서 영영 사라져야겠는데!

생각하기에도 끄찍스러운 저 와우아파트, 충주아파트 등의 붕괴사건 등등 그 원인을 따지고보면 이러한 사회적풍조가 자아낸 소산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대형사고가 나면 그저 건축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으로서 그 원인 자체를 분석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당사자의 책임또한 면할 길이 없지만 무리한 예산에 맞추어서 저가시공, 또한 전시효과에만 혈안이 되었던 그 졸속시공 등이 이러한 대형사고를 유발한 근원이란 것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병폐는 우리사회에서 영원토록 퇴치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고질인 대형사고로 인해 국가적손실 등을 고려할 때 온국민과 더불어 건축사가 앞장서서 실천해야함에도 아직도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불성실한 일부 회원들은 회원의 권익옹호를 스스로 저버리고 지위향상을 저해하는 보수액의 할인은 물론 무자격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불명예스런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주변회원들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회원들간의 친목과 단결에 역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지극히 유감천만한 행위로 마땅히 지탄의 대상이다.

이는 재물(財物)에 대한 지나친 탐욕에서 배금사상의 발로라하겠으며 이와같은 행위는 참된 건축사상(像)이 아니라는 뜻도 있다. 물욕보다도 우리들의 결속된 회원사회에서 더욱 건축예술의 창조에 헌신하는 일에 기여할 때 좋은작품이 선보일 것이며 건축사로서 떳떳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우리협회도 국가발전에 발맞추어 일취성장(日就成長)하여 창립회원이 247명이었던 것이 30년이 된 오늘날 5,070여명의 대가족으로 늘어났으며 창립당시 초대회장이었던 김순하 개인사무실에서 더부살이로 일하였던 것을 시발로 그후 종로서린동에 회관을 개관하였으나, 우리회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현재는 서초동에 현대식 협회회관을 자립으로 건립하여 그 위용도 당당하게 세워져 협회운영에 원활한 기여를 해 주게끔 발전을 하였다.

건축설계 능력도 세계화의 물결에 발맞추어 능력있는 대다수회원들이 세계각국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은 협회원의 차원에서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또한 국제건축현상공모에서도 출품하여 당당하게 수위로 당선함은 우리나라 건축사의 명예를 만방에 떨쳤던일들도 잊을 수 없는일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일들을 회상해 볼 때 창립30주년을 맞이한 오늘에 격세지감(隔

世之感)이 있다.

세월은 유수(流水)와 같다 하였던가!

협회창립을 위해 노심초사 오늘의 건축사협회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터전을 안겨주기 위해 무한한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이제는 유명을 달리하신 초대(初代)김순하회장과 회원들의 참 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고인들에게 머리숙여 명복을 빈다.

협회창립 30주년을 맞이함에 있어

논어위정편(論語爲政編)에 30세(三十而立)에 모든 기초를 세웠다고 했다.

이제는 바야흐로 세계화의 조류에 발맞추어 더욱 앞장 발전을 해야 하겠다. 부단한 노력과 창조적인 정신이 없이는 지식폭발시대에 적응할 수 없으므로 세계 각국의 선진기술제휴, 정보교환 등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필자는 국제개방에 대비하여 방책을 서두르자고 4년 전부터 주장한 바 있었으나 당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른 것을 이쉽게 생각한다. 이제 WTO가 우리 눈 앞에 놓여 있다.

전산화와 정보시스템도 협회가 주도해서 우리 회원사에게 널리 계도보급해서 회원들의 적응력을 갖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었으나 현재 장기계획상태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시대적 흐름을 도외시하고 있는 처사로서 이를 직시하고 과감히 실현시켜서 선도하여 회원사에게 홍보, 교육을 하여 주었으면 한다.

또한 협회를 대표하고 이끌어 가고자 할 회장단에게 당부코자 한다. 모름지기 공인으로서 협회를 위하고 회원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함에도 어느 썩클 또는 국한된 사고방식으로 전체회원사에게 누를 끼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비우게 된 사례 등은 협회차원에서 불행한 일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회장선출에는 학연이나 지연 등에 치우치지 말고 인물분위로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봉사하는 분을 선출하는 풍토가 정착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협회가 극복해야 할 난관들이 놓여져 있다고 본다. 협회 내에서의 불협화음이 그 예이고 또한 우리들의 주권을 잠식하려고 한 건설업계의 일각에서 건설업

체의 설계 겸업요구 등이 그러하려니와 이럴수록 우리 모두 힘모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옹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확고한 제도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대동단결하여 크나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창립30주년을 회고하며 2

책임있는 건축사상 제고

Fulfills Our Responsibility

安仁模 / 창립회원, 한가람 건축사사무소
by Ahn In-Mo

대한 건축사협회 창립 30주년을 맞는 이 감개무량함을 무엇에 비기겠는가! 마침내 30년의 금자탑이 세워졌다. 흔히들 인생 30년을 한 세대로 잡는데 대한건축사협회가 그 창립에서 첫 한세대의 발자취를 남긴 역사를 기록하게 됨을 협회 창립에 참여하였던 건축사 여러분과 더불어 큰 기쁨으로 여긴다.

우리 협회는 창립부터 민주주의 방식과 선거로 크게는 전원총회, 대의원총회, 각지부총회(현재는 각 자치지역 건축사회로 발전한)각종 분과 위원회에서 엄격히 지켜져 각종 회의가 오늘에 이어져 온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그런 까닭에 초대회장으로부터 현 김규태회장까지 그 역대 모든 회장이 선출됨에 있어 최선의 민주방식으로 회장이 되었기에 존경의 대상이었고 모든 회원들이 기대를 걸었으며 대다수회장들이 그 소임을 훌륭히 완수했다고 본다. 때문에 협회는 엄존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들의 권익수호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은 그동안 건축사헌장을 제정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각지역 건축사회에서도 같은 순서로)당일 부의안건 토의에 들어가기전에 건축사

현장을 낭독하여 건축사의 결의를 다짐한다.

우리들은 관계법인 건축사법에서 건축사의 품위보전을 강조하였고 본협회의 정관에서 그리고 건축사 윤리규정에서 건축사의 품위보전을 주장하였다.

우리가 내세운 건축사 현장을 한낱 구호로 여기고 품위보전을 못함으로써 세인의 구설에 오르고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도 있다. 건축사는 이제 발분하여 건축사의 제모습을 찾을때가 바로 이때라고 확신한다.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아야겠다. 우리 건축사협회에는 명암양면이 있어 그 업적이 찬연한 회원도 적지 않다.

현상공모로 당선되어 세워진 고 김수근 회원의 작품인 잠실올림픽 메인스타디움과 공간사옥 등을 비롯한 수많은 각종 건물들은 30년동안에 건축사들이 심혈을 기울인 결정체인 것이다. 이렇듯 건축사들의 창작의 결과는 밝은쪽이 많지만 어두운쪽으로 나타나서 근래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형건물의 붕괴 사고같은 가슴아픈 재난을 보게 된다. 또 건축업계를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일례로 대기업에서는 우리들 건축사를 무시하여 그 설계 및 감리권을 탈취하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들은 금력으로 컨설턴트나 엔지니어링이니 하는 컴퍼니 유니트를 개설하여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자를 고용, 건축사법에서 보장하는 업무권리인 설계, 감리 분야를 잠식하려 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그것에 포섭되어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를 무능화시키려는 인사도 더러 있다고 들었다. 지난 93년도를 전후하여 건설기술촉진법을 제정 발표할 즈음 건축사업자가 위기를 맞을 당시의 회장을 대신하여 일차 역임의 오웅석회원을 위기 대책회장으로 다시 추대하여 그 소임을 다하게 하였다. 그 후로 여러가지 곡절끝에 현임 김규태 회장을 선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일어나서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서 건축사의 한 사람으로 무슨 평을 할까?

우리는 다같이 건축주 또는 시공사측의 중간에서 소신 없는 품위상실의 한낱 부평초가 아니었던가 자성한다. 앞으로 제도의 구축에서 연구개선할 점은 저 싱가포르의

교통질서와 건축설계 감리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 우리는 설계자 곧 건축사측의 감리자와 시공사측의 감독을 뚜렷이 구분하여 시행되기를 바란다. 공사장 안팎의 모든 위해(危害)사항과 콘크리트 배합 또는 그 시공까지도 시공사측의 감독자에게 전임시키고 영구 책임을 지우며 건축사측의 감리자는 시공사측 감독자의 협력을 얻어서 각 구조물의 시방서와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곧(재질, 치수, 결구구조의 정확등까지도 포함)영구책임 지우는 제도의 확립을 기대한다.

이제 우리 협회는 회원의 연령으로 보아 점점 청년화 되어간다. 참 좋은 현상이다. 앞으로 우리 젊은 회원들은 건축조형물 창작에 슬기와 정성을 다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며 다른 분야의 예술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히하면 대상창작물이 자기 밀천만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따라서 함부로 자신을 예술가라고 과장표현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들 건축사는 냉철한 이성인이며 꿈을 가진, 철학을 지닌 사람들이며 장인정신을 지닌 조형예술인이다.

모든 건축사가 지난날 자신이 직접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각자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일까 다같이 과거를 회상하고 각자 반성하여 보자.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건축사업자는 30년간 통틀어 힘에 부치는 주변정세가 건축주와 시공자의 틈바구니에서 사회의 관습에서 수렁에 빠져드는 몰골로 건축사 본연의 자세를 취하여 보지못한 우리들이 아니었던가? 이제 한창 어려운 시대인 오늘날 아직도 우리사회는 온갖 부조리와 부실이 그 치질 않고 있다.

5천여 건축사는 이제야말로 이 시대를 책임져야할 중요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으로 일치단결해 건축사위상 제고와 찬란한 건축문화창달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